“화쟁 사상, 사회 갈등 치유 기제 될 수 있어”

〈機制〉

조계종 화쟁위, 3월 4일 세미나
‘화쟁,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
김희옥 총장 ‘화쟁 헌법 가치’ 발제
“헌법 가치 부합 통합 정치 실천”
정치·경제·사회 갈등 해소 제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3월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화쟁(和諍),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계 원로와 학자, 언론인, 법조인들이 참여한 토론 모습.

불교 화쟁사상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정만 스님)는 3월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화쟁(和諍),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화쟁 방법을 살피기 위해 준비됐다.

세미나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화쟁위원회 위원장 정만 스님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와 학계·언론계·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화쟁은 서로 다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더 큰 진리를 향해 함께 나아가게 하는 길”이라면서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넘어서는 지혜이며, 분열을 덮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가 원효 스님의 원융회통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시간이 되길 염원했다.

정만 스님은 인사말에서 “화쟁은 다름을 껴안는 중도의 실천이자 경청을 바탕으로 한 대화의 수행”이라며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져 서로 듣지 않는 현실을 넘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허물을 살피는 데서 화쟁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와 사회도 안정된다”며 “이번 세미나가 정치와 경제·사회 영역에서 화쟁 모델을 제시하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화쟁의 정신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헌승 국회정각회장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순간에도 부처님 앞에서는 한 명의 불자로서 마주 앉아 조화를 이루는 길을 찾고자 정진을 이어 왔다”면서 “세미나를 계기로 국회정각회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공존과 화합의 길을 넓혀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불자회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최근 인공지능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답을 내놓기 위해 다른 관점을 가진 매체와 논의해 답을 표현한다”면서 “인공지능에 화쟁정신이 녹아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이 사회 곳곳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신하고 복잡한 사람들과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화쟁도구’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은 ‘화쟁사상과 헌법적 가치’를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김 전 총장은 “대한민국 공동체 유지·존속과 통합이라는 헌법 정신·헌법적 가치와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은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민의 행복추구·자기결정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정신이 같은 지점에 있다”면서 화쟁사상과 헌법의 가치를 이 시대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사회 전반의 갈등 수준을 수치로 나타내는 ‘갈등 지표’를 언급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 심화가 사회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갈등지수가 높은 반면 갈등관리 역량은 낮은 현실을 지적한 김 전 총장은 “화쟁 사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機制, Mechanism)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통합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협치와 공존의 정치’ ‘공정과 연대의 사회’를 주제로 정계 원로와 학자, 언론인, 법조인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입법권의 한계, 공정한 법 집행, 사회적 신뢰 회복 등을 사회통합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 다름을 인정하되 공동체의 존속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더 큰 가치 아래에서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남양주 봉선사 동종’ 국보 된다

국가유산청, 3월 4일 예고
불교유산 보물 지정 잇달아



조선 전기 동종 완성작으로 평가받는 ‘남양주 봉선사 동종〈사진〉’이 국보로 승격·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3월 4일 “조선 전기 대형 동종 ‘남양주 봉선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려시대 상감 청자인 ‘청자 상감쌍룡국화문 반’, 조선 시대 초상화인 ‘유효걸 초상 및 궤’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후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남양주 봉선사 동종’은 조선 제8대 국왕 예종이 부왕(父王)의 명복을 빌고자 봉선사를 창건하고 제작해 모신 동종이다. 이 동종은 조형적으로 중국 동종의 양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되 한국 동종의 문양 요소가 반영된 작품으로, 조선 전기 동종 양식의 완성작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남양주 봉선사 동종은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대형 동종 가운데 유일하게 현재까지 이운 없이 제작 당시의 봉안처인 봉선사 종각에 그대로 봉안돼 있고, 한국 동종의 양식사에서 조선시대 동종의 전형을 완성한 기준이 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국보로 지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의 이유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예고한 ‘남양주 봉선사 동종’, ‘청자 상감쌍룡국화문 반’ 등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국보·보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전법단 11개 분야 단장 임명

진우 스님, 3월 5일 임명장
“불교 중흥 탄탄한 밑거름”

조계종 전법단(총재 진우 스님, 총무원장)을 이끌어 갈 전법단장들이 임명됐다.

진우 스님은 3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 11개 전법단의 단장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인 전법포교 활동을 당부했다.

이날 임명된 전법단장 스님들은 병원전법단장 지인 스님, 경찰전법단장 담화 스님, 신도시전법단장 도봉 스님, 청년대학생전법단장 능원 스님, 교정교화전법단장 혜원 스님, 장애인전법단장 해성 스님, 체육인전법단장 무경 스님, 국제전법단장 문종 스님, 연예인전법단장 우봉 스님, 인천강화연합(인천) 단장 성안 스님, 인천강화연합(강화) 단장 여암 스님이다.

진우 스님은 “스님의 역량을 극대화해 전법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종단에서 많이 지원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면 불교중흥에 탄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각 전법단별 현황과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은호 기자


3월 5일 전법단장으로 임명된 스님들이 진우 스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올해 회원장 본격 실행”

〈葬〉

3월 5일, 운영위원회서 계획 공유
방문상담서비스 프로그램 진행도



전국비구니회는 3월 5일 서울 법룡사 메따공연장에서 ‘제39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2025년 한 해 동안 준비한 ‘전국비구니회원장’이 올해 본격 실행된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 5일 서울 법룡사 메따공연장에서 ‘제39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비구니회원장’ 실행을 공식화했다.

‘전국비구니회원장’은 노비구니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돌봄부터 장례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한평생 수행과 전법에 매진해온 비구니 스님들이 승가공동체 안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발원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돼 왔다.

매월 TF팀 회의를 열어 올해 업무 추진을 위한 사전 대비를 해왔고 9월에는 8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공청회를 실시하며 실행을 준비했다.

올해 1월, 기금관리위원회와 장례봉행위원회, 전화방문상담서비스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위원장들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시행규칙 하부내용에 대해서도 회칙제개정위원회와 연계해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회원장 조직도에 따라 전화방문상담서비스위원회의 활동도 본격 가동된다. 서비스에 앞서 개발 교육프로그램을 지회스님에게 교육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복지정책위원회의 조정안 모색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함께 논의된 회칙개정의 건에서는 원로회 원로의원을 25인 이내에서 21인 이내로 개정키로 했다. 임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날 회장 광용 스님은 회의에 앞서 중앙지회와 서울지회 등 6개 지회 신임 운영위원과 법룡사 총무 정인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 2026 총회는 3월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임은호 기자



